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4, 여호수아 1:1-9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룯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좋아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기 시작할 것이며, 이 책의 개요인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참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그것을 꺼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요를 보면 이 책이 4개의 주요 부분, 즉 1장부터 5장, 6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22장부터 24장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섹션에 대한 내 라벨에는 모든 항목에 상속 또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언급한 책의 주제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것이 모두 상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괄호 안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 역사서에 관한 교과서를 일찍 출판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서에 관한 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장에는 책의 개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의 개요는 토지 정복의 효과에 대한 제목이 붙은 첫 번째 섹션의 세 가지 개요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이 논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책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나는 이전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복이라는 개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과 유업 등을 주시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복은 6장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5장을 이에 대한 준비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제 논평에는 제가 방금 언급한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제 자신과 모순되는 글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책에서 더 중요한 주제 문제로 보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주요 제목에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땅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수세기 동안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오경은 이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2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이들. 그래서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리더인 여호수아 자신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등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파들을 준비시키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기에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인 라합 자신도 참된 신자의 빛나는 모범입니다. 본질적으로 가나안 개종자로서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다. 3장에서는 실제 횡단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일어서고 멈추는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4장 전체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강조하는 데 전념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5장은 거룩함에 관한 장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첫 번째 일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것이 일종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제로 1장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성경이 있다면 첫 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은 물론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것들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의 서문을 1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무대를 설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서술적 틀입니다. 여기의 전체 장은 대화나 연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 백성들의 반응 등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이런 종류의 일이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지만 아직은 합당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모세의 도움이나 보조자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 요단으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니라. 나는 내가 주는 땅인 영어표준역을 읽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판에는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면 이것은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 절에서 동사의 다른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 밭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면 완료형, 과거형, 완료된 동작입니다.

불행하게도 NIV와 아마도 다른 번역본들도 불행하게도 3절에서 주님, 나, 내가 주려고 하는 땅, 또는 내가 주고 있는 땅을 나는 정확히 잊어버리고 있다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에서와 같이 NIV의 동사 형태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수준의 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땅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요르단 동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행 중이거나 곧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사를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완료된 거래와 같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으러 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당신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일이거나 이미 완료된 거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든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토지를 증여하는 일을 중요한 주제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신다는 말씀인 나탄이라는 단어는 책에 수십 번 등장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첫 두 구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레바논 광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대해까지 해 지는 쪽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까 가지고 있던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의 전부이며 위로는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시리아까지, 아래로는 오경의 다른 부분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집트 강, 이집트 국경까지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그려주신 일종의 지도, 지리적 지도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소유할 땅이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북동쪽으로 먼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먼 곳까지 실제로 그 땅에 물리적으로 거주했다는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람 땅과 시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확실히 그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견딜 수 없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버리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인 이 개념은 다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경우에는 지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확장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구입니다. 구약성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이나 약속.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6절에서 9절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6절과 7절, 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에 일종의 괄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7절과 8절에 언급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군사적 맥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큰 도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투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육체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의 이 모든 책임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어떤 군사적 조언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기로 가서 6개월 동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전투력을 확실히 발전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군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권고의 핵심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군사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7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매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면서 강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임무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매우 용기를 가지십시오. 7절,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용기나 확고함이 가나안 족속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만일 그가 앞서 주어진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직면하는 군사적 노력에서 그에게 성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7절에 이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좋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심리적으로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리쳐야 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여기서 군사적 조언과 전략을 얻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그렇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어떤 면에서 이 기록은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나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5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면 할례를 받고 그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예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 전략의 핵심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왕들의 성공의 열쇠로 돌아가는 경건한 리더십이라는 더 큰 주제와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대해 별도의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시점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번영과 좋은 성공에 관한 이 구절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장 7절 마지막에 이르시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시고 8절에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좋은 성공. 여기와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구절을 취한 일부 기독교인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곳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절을 맥락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추종자는 물질적인 성공을 얻을 것이며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부와 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측면에서 그 구절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종류의 설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사역, 그리고 다른 사역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의 왜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그것은 실제로 이 장에 있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물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 23장에서는 스스로 의지할 수 있지만 잠언 23장 4절과 5절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캐스팅하지만 재물을 한눈에.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날개를 치고 하늘로 날아갈 것이기에 사라진다.

부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공간을 지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없어 죽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잠언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는 두 가지가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 “거짓을 지키며 거짓을 멀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정말 기도입니다. 나에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유가 너무 많아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이 누구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자족하고 자만심을 느낄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시카고 지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트리니티는 매우 부유한 지역의 북부 교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고급스러운 교외 지역 중 한 곳에서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외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른 지역에서 통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외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서 종교나 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면 가난해지고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기도는 중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지 말고, 너무 가난할 때 도적질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도록 균형잡힌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여기 여호수아서에 형통하고 성공하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수십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번 정도 함께 발생합니다.

나는 논평을 쓰는 과정에서 연구를 했고, 이 단어들이 어떤 경우에도 재정적 번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거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 성공하거나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성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내를 찾는 그의 사명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악한 의도로 번영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단어는 어쨌든 물질적인 번영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번영 복음이나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와 성경의 다른 부분의 가르침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책을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지파들과 상호 작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